

조선시대 와유문화의 전개와 전통조경공간의 조성

김수아* · 최기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e of Mental Stroll about Nature and the Building of the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Space in Choseon Dynasty

Kim, Su-Ah* · Choi, Key-Soo**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is study is explored the relationship of cultural history between the culture of mental stroll about nature and the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spaces, which showed various aspects of developments, based on the records as to landscape architecture spaces.

The philosophical view on nature was turned into the esthetic view with the mellow ripeness of multifarious cultures in Choseon period, since the life of literati had to be a comprise between the Confucius' life and the Taoist life. Around the seventeenth century, as the culture of enjoying a secluded life in city had been descended, the aspiration to appreciate nature in daily life with the changed view on nature. Those desires made the Wa-yu culture, which has a meaning of mental stroll about nature, and drew the attention and various kinds of the Wa-yu culture had bloomed. In the field of Korean literature, the record of strolling in nature had flourished, while the realistic landscape painting had emerged in the field of art. In the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building of places where the vivid experience of nature was realized in the aspect of impressions was performed to express their utopia. Indeed, the spac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reality meant more than the actual nature.

Key Words :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Spaces, Culture of Mental Stroll about Nature(Wa-yu Culture), Mental Strolling, Imaginary Garden(Ui-Won), Technique of Borrowing Scenery(Cha-Kyung)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시대 문인들의 조경공간과 관련한 기록을 대상으로 조선시대 다양한 전개양상을 보인 와유문화와 전통조경공간과의 문화사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현실의 유교적인 삶과 자연의 도교적인 삶을 절충하며 살아야 했던 조선시대 문인들의 산수자연에 대한 태도는 다방면의 문화가 난숙해지면서 점차 철리적(哲理的)인 태도에서 심미적(審美的)인 태도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수자연관의 변화와 명말청초 시은(市隱)하고자 하는 성시산림(城市山林)의 문화가 전래되면서 산수자연을 일상공간에서 쉬이 즐기고자 하는 바람이 간절해졌다. 그러한 바람은 현실 속에서 소요유(逍遙遊)한다는 의미를 갖는 와유문화(臥遊文化)에 주목하게 되고 다양한 와유문화의 양상들을 만들어냈다. 국문학분야에서는 일상공간에 앉아 산수의 감흥을 글로 즐길 수 있는 산수유람기(山水遊覽記)가 발달하고, 미술분야에서는 이상향을 그렸던 관념산수화(觀念山水畫)가 실제의 경관을 옮겨 찍진(逼真)한

* Corresponding Author : Kim, Su-Ah,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Seoul 157-857, Korea. Phone : +82-10-4046-4428, E-mail : suah914@gmail.com

산수의미를 즐길 수 있는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畫)로 발달하게 되었다. 조경분야에서는 개인의 이상(理想)을 표현할 수 있는 일상공간에 산수자연을 담아 감상의 측면에서 가장 생생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전통조경공간은 방안에 누워서도 꿈꾸고 싶은 대상으로 실제 산수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주제어 : 전통조경공간, 와유문화, 소요유, 의원, 차경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과거 우리 선조들은 자연을 벗하며 살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주어진 환경에서 살기 위한 삶의 적응 방식으로서 생태적 자연관을 가졌다. 그리고 풍류적인 태도로 생존을 넘어 도덕과 이성으로 추구하는 이상(理想)이자 현실과의 괴리를 순화할 수 있는 여과의 매개체로서 자연을 향유하는 문화가 있었다.

특히, 풍류적인 태도로 산수 자연을 즐기는 문화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난다. 먼저, 자연을 직접 찾아 체험하는 방법으로 산수유람(山水遊覽)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상 속의 세거지(世居地)는 자연 속에 있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매일같이 자연을 찾아 나설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선조들은 산수자연에 묻혀 사는 도교사상의 자연적인 삶도 추구했다. 대립적으로 보이는 현실적 삶과 자연적 삶은 현실에서 갈등을 야기하면서도 현실을 벗어나지 않고 자연을 노닐면서 정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양상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조선시대 활발한 전개양상을 보이는 와유문화(臥遊文化)이다. 산수자연을 와유하고자 정원을 조성하거나 석가산(石假山), 산수화(山水畫), 산수유기(山水遊記) 등을 제작함으로써 와유문화가 성행(이종목, 2004)한 것이다.

조선 후기는 잦은 당쟁과 사회로 인해 세상을 등지고자 하는 은일사상(隱逸思想)이 팽배한 가운데 전반적인 문화가 난숙(爛熟)을 이루는 시기였다. 조경공간의 조성에서부터 이를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활용하기까지 조경문화 또한 정착한 시기이기도 하다. 조경공간의 조성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생활공간 속에서 개인의 이상적(理想的)인 우주(宇宙)를 표현해내기 위하여 철리적(哲理的)이면서 심미적(審美的)인 산수를 모방하여 새로운 자연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조경공간은 여가(餘暇)의 공간이자 감상(感想)과 완상(玩賞)의 공간으로서 문화적 욕구를 표출해내는 공간이 된다.

본 연구는 예나 지금이나 산수자연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대상으로 여기지만, 이에 임하는 방식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조선시대 와유문화는 산수자연을 자신의 일상공간으로 들여 즐긴 것과 풍류이다¹⁾. 이에 반해 현재의 산수자연을 찾는 문화는 자연을 정복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향락과 유흥의 의미가 더 크다

(소현수, 2003: 116). 이러한 차이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이를 통해 발현된 문화의 차이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산수자연을 일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었던 전통조경공간의 관련 문헌과 회화를 통해 현재 추측 가능한 조선시대의 와유문화와 전통조경공간의 조성에서 보이는 관계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전통조경공간의 구성에 와유문화가 미친 영향에 관한 것으로 산수에 대한 벽(癖)²⁾을 자신의 일상공간에서 해소한 양상으로서 해석하고자 한다. 먼저, 조선시대 유행한 와유문화의 의미와 전개양상을 살펴본다. 간접적으로 산수자연을 즐기고자 한 와유문화의 양상을 살펴봄에 전통조경공간과의 관련성을 탐색한다. 둘째, 조선 후기에 활발히 조성된 전통조경공간의 시대적 배경을 고찰한다. 다방면의 문화가 성숙된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와유문화와 더불어 조경문화가 활발히 전개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전통조경공간의 조성의도를 통해 조성자가 구현하고자 한 와유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구의 방법

조경공간을 구성하는 자연요소들은 변화를 거듭하고 유한한 생명력을 지녔기 때문에 유적의 원형을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조경공간과 관련한 문헌들과 회화를 통해 당시의 모습을 추론하고, 조경공간이 가진 문화사적(文化史的)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와유문화는 감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신의 노닐을 지향하는 문화이므로 현존하는 물리적인 구성물의 확인과 더불어 과거의 시점에서 기록한 문헌과 회화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시대 와유문화와 전통정원을 포함한 전통조경공간의 관련성을 찾기 위해 의원기(意園記), 원기(園記), 제시(題詩), 첩발(帖跋) 등의 문헌을 분석한다.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된 문헌을 포함하여 한문학과 국문학 분야에서 국역된 문헌의 2차적 자료를 통해 와유문화와 관련된 전통조경공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헌보다 더욱 가시적(可視的)으로 당시 조경공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즐긴 문화의 행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회화이다. 특히, 미술학 분야에서 조선 후기 정원을 기록한 별서도(別墅圖), 아회도(雅會圖), 아집도(雅集圖) 등을 발굴

하여 그 의미를 제고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의 발달로 실제 조경공간에 대한 묘사가 자세히 표현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정경(情景)에서의 노닐을 기록하여 회화를 지속적으로 와유(臥遊)의 자료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발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조경공간이 가지는 의미와 함께 그 곳에서 향유한 감흥을 제고할 수 있다.

3. 관련연구고찰

조선시대 문헌에서 와유의 의미를 발견하고 활발한 연구를 진행한 분야는 국문학 분야이다. 특히, 이종목(2004)의 연구에서 와유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봄에 와유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그가 정리한 조선시대의 와유문화는 산수자연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정원의 석가산과 회화분야에서의 산수화나 국문학분야에서의 유산기(遊山記) 등 전반적인 예술문화의 발전에 와유문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였다. 미술사학 분야에서는 조송식(2006)의 연구가 있다. 그는 중국에서 형성되어 전개된 와유사상(臥遊思想)이 예술적 양상으로 실현된 것들을 통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와유사상을 중국의 예술을 이해하는 한 단서로 연구하였다. 그가 정의한 와유는 정신적 자유로서 소요유(逍遙遊)의 경지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와유사상은 예술적 실현을 위하여 산수를 노닐고 싶어 직접 그리거나 산수화의 창작론(創作論)과 그려진 그림을 즐기는 데에 초점을 맞춘 감상론(感想論)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결국 예술이 창작되고 감상되는 것은 일련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창작자와 감상자의 관계에 의해 와유사상의 전개는 이분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미술교육학에서도 와유사상을 이용한 학습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중 이성도(2004)의 연구는 와유사상의 창작론적 관점과 감상론적 관점이 조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기를 하는 데에 있어 그림 안의 인물과 그림을 그린 화가, 그리고 그림을 감상하는 관람자가 분리되지 않고 감상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은 이제 단계가 분리되기 쉽다. 특히, 조선시대 후기 와유문화가 성행할 당시 직업화가가 등장하고, 가보지 못한 곳을 기록으로 남겨 많은 이들이 공유한 점을 고려해 보면 이성도가 주장한 그림의 와유적 감상법은 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조경공간의 조성을 살펴보면 산수화를 감상하는 것보다 세 단계의 주체가 일치될 가능성이 더 높다. 즉, 개인의 주거 공간 안에 만들어진 조경공간은 창작자로서 산수자연을 모방하여 조성자의 취향대로 꾸미고, 감상자로서 조경공간을 노니는 즐거움을 가지며, 이를 또 다시 기록으로 감상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수자연을 담은 전통조경공간은 와유의 대상으로서 조성이 되기도 하였으며, 와유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종목(2002)은 석가산을 와유문화의 한 양상으로 소개하면서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자연’이라

표현하였다. 은일(隱逸)·은거(隱居)생활을 꿈꾸지만, 그렇지 못함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써 전통조경공간은 가장 뛰어난 와유문화의 양상인 것이다.

II. 조선시대 와유문화의 전개와 전통조경공간의 조성

1. 와유(臥遊)의 의미와 전개

1) 와(臥)·유(遊)의 문자적 의미

가장 보편적으로 와유의 의미는 ‘누워서 유람한다’는 뜻으로, 집에서 명승이나 고적을 그린 그림을 보며 즐거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와유의 문자적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설문해자(說文解字)」를 살펴보면, ‘와(臥)’는 우선, ‘신(臣)’자에서 ‘구부리고 있는 모양을 상형한 [상굴복지형(象屈服之形)]’이라고 하였으므로 ‘와(臥)’는 ‘인(人)’과 ‘신(臣)’으로 구성된 회의자(會意字)다. 이로써 ‘와(臥)’는 ‘엎드리다’를 뜻한다.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의미와 ‘눕다’라는 의미를 구분한다. 눕는 것은 침상에서 하는 것이고, 엎드리는 것은 ‘궤(几)에 기대어 쉬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유(遊)’는 ‘책받침(几(几)) 쉬엄쉬엄 가다’ 부(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부수를 제외한 글자 ‘유(游)’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놀다’, ‘즐기다’, ‘유람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지향적 운동성’을 나타내는데 장자(莊子)의 ‘소요유(逍遙遊)’, 굴원(屈原)의 ‘원유(遠遊)’가 그것(유준영, 1998: 100)이다. 오늘날의 자유와는 다른 의미이지만, 장자가 말하는 ‘소요(逍遙)’와 ‘유(遊)’는 정신적인 자유를 동경하고 추구한 것이다.

2) 와유의 전개

위진남북조시대의 종병(宗炳, 375~443)은 불학자(佛學者)이자 산수화가(山水畵家)이면서 동시에 화론가(畫論家)였다. 그는 자기 방의 벽에다 산수를 그려 놓고 늙어 병들었을 때 누워서 벽의 그림을 보며 생각을 맑게 하고, 도를 다시 체득하고자 한다는 의미로 와유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 무릇 성인이 神으로서 道를 따르고 현자는 산수를 통해 形으로 도를 아름답게 드러내나니 仁者의 즐거움이 어찌 거의 가깝지 아니한가? [宗炳, 畵山水序]³⁾

종병이 와유를 통해 산수에서 얻고자 한 것은 도를 따르고, 형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하여 즐거움에 이르는 것이었다. 종병이 사용하기 시작한 와유란 용어는 송(宋)이나 원대(元代)에 그리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았으나, 명대(明代)에 이르러 산수유람이 유행하고 산수기행문학(山水紀行文學)이나 기유도(紀

遊圖)가 즐겨 그려지면서 활발하게 사용되어졌다. 명대 문인화가로 자기 주변의 산수를 유람하고 그 기록으로 기유도를 많이 그렸던 심주(沈周, 1427~1509)로부터 명말청초 각종 명산관화집의 서문에 이르기까지 와유의 언급이 빠지지 않고 등장(고연희, 2001: 193)하였다. 그런데 명대에 유행한 와유의 개념에는 뜻을 찾고 도를 체득하고자 했던 종병과는 다른 와유의 개념을 담고 있다.

옛날 노닐던 것이 오래 전 일처럼 황홀하게 기억된다. 나는 옛 화실이 있어 언제나 이목을 즐기고 마음과 뜻을 즐겁게 한다. 한 차례 그 사이에서 神遊 하나니 오히려 종병 와유 노인보다 낫도다. [沈周, 紀遊展]⁴⁾

심주는 과거의 어려운 심성수련의 의도로 즐기던 와유와는 전혀 다른 유희적 와유를 주장하고 있다.

조선의 문인들도 산수유람기(山水遊覽記)를 읽고 산수화(山水畫)를 펼쳐 보는 것이 와유의 즐거움이었다. 조유수(趙裕壽, 1663~1741)는 이병연(李秉淵, 1671~1751)에게 정선의 금강산도 4폭을 청하면서 병이 깊어져 산수에 노닐 수 없으니 와유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산수기행문학집들이 「와유록(臥遊錄)」이라 일컬어진 것 또한 당시의 이러한 와유론(臥遊論)의 성행에 반영(고연희, 2001: 195~197)했기 때문이다. 17세기 후반에 엮어진 신익현(申益峴)의 「와유록」의 서문이다.

사람에 따라 양과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에도 정묘함과 조악함, 깊고 얕음의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나 숨어 있는 산수를 찾아내고 멋진 산수를 기술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와유의 흥을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한 가지이다... 이를 취해 읽으면 내가 이미 유람한 곳은 모두 또렷하게 눈앞에 있게 될 것이고 아직 유람하지 않은 곳은 또한 그 방불함을 상상할 수 있으려니, 황홀하여 제 몸이 집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申益峴, 克齋集, 東國勝景臥遊錄跋]⁵⁾

조선시대의 산수에 대한 흥취를 접하기 위한 와유는 종병과 달랐다. 즉, 늙고 병들어서 산수를 찾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젊고 힘도 있지만 항상 산수자연을 곁에 두고 보고 싶기 때문에 와유한다는 것이다. 와유는 산수를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얻은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

3) 다각적인 와유의 의미해석

고려 충목왕 4년(1348) 이색(李穡, 1328~1396)은 그의 문집에서 병든 몸을 회복하는데 새벽 창 밖의 햇빛으로 와유를 한다고 하였다.

曉窓日色淡如秋 / 새벽 창 햇빛이 맑기가 가을날 같아서
病骨欲蘇供臥遊 / 병든 몸 회복코자 와유하기에 꼭 알맞네

衰老幸然安所遇 / 노쇠하나 다행한 건 환경 따라 편안함이라

...

老翁獨坐風塵外 / 이 늙은이 홀로 풍진 밖에 앉았노라니
浮世茫茫盡繆悠 / 덧없는 세상 아득해라 모두가 거짓일세
[李穡, 牧隱集, 새벽에 읊다.]⁶⁾

고려 말기의 학자 이승인(李崇仁, 1347~1392)은 오랜만에 만난 벗이 환담한 후 유람하려는 자신을 위해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빨리 떠나도록 하라. 三代시대로부터 漢·唐 이후로도 천하가 통일된 때는 적으니, 진실로 통일이 아니면 땅덩어리가 증단되어 비록 스승을 찾고 도를 물을 뜻이 있더라도 어떻게 갈 수 있으랴. 그 때 문에 宗小文이 臥遊의 한탄을 하게 된 것이다. [李崇仁, 東文選, 送兩千峯上人遊方序]⁷⁾

이 때 이승인은 종병이 말한 와유의 한탄을 비유하며, 어서 떠나라고 한다. 이미 고려시대에는 심성수련을 뜻하는 종병의 한정적인 와유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고 있었다.

조선 초기의 문인들은 산수화를 통해 종병과 같은 '와유'를 지향하면서도 종병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의 와유를 즐겼다. 그것은 종병이 과거에 올랐던 산수를 그린 것이었던 것에 반해, 조선 초기의 문인들이 즐겼던 그림은 가 볼 수 없는 이상향과 이역의 땅을 대상으로 그려 시공간을 초월한 정신을 와유(조송식, 2002: 53~54)하였기 때문이다.

이 그림을 감상하니 문득 臥遊翁보다 뛰어나다. [尹季童, 對此頗勝臥遊翁]⁸⁾

윤계동(尹季童)은 안건(安堅)의 〈몽유도원도(夢遊桃園圖)〉를 보는 자신이 종병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고 있다. 와유의 사상이 중국의 종병에서부터 출발하여 조선에도 전래된 것이지만 그 향유와 양상은 조선의 문화로 절충되어 전개되었다.

조선시대 문화가 성숙되면서 와유는 다양한 범위로 전개되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원에 건립한 건조물(建造物)의 편액(扁額)에 와유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석가산(石假山)을 조영하는 이유를 '와유' 때문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산수화나 산수유기 또한 '와유'의 매개로 활용하고자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전국을 그려 노니는 놀이를 하고 전국을 상상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하여 와유를 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의 벗과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은 정원을 조영하고, 그 공간에서 노닐고 싶은 마음에서 머무는 공간의 편액을 '와유'로 설정하였다. 정원을 조성한 이윤토 개인의 공간에 이상향을 꿈꾸며 한적함을 노닐기 위한 것이지만, 조성만으로는 그 흥을 다 취할 수 없는 듯, 정원에 있

는 정자(亭子)나 암(庵)의 이름마저도 와유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 일상공간에서 산수를 접하고자 하는 와유의 진정한 의미를 채팽윤(蔡彭胤, 1669~1731)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산은 와유할 수 있는가? 산에 오르고 물에 피어야 하니 강산은 와유하는 것이 아니다. 강산이 와유하는 것이 아닌데 옛사람이 어찌 그렇게 하였나? 내가 일찍이 들으니 그림으로 그려 자리에 두고서 본다고 한다. 하물며 진짜임에 있어서라? 이것이 정말 와유로다. 지금 배를 끌고 다니거나 지팡이를 짚고 오르내리는 수고로움과 즐림함을 알게 되었다.[蔡彭胤, 希菴先生集, 臥遊亭記⁹⁾

강산을 힘들게 오르내릴 때는 그것을 느끼기보다 체험하고 움직이는데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진정 산수를 매개로 정신을 노닐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의 산수를 바라보며 편히 누워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와유도(臥遊圖)나 와유록(臥遊錄)이 가짜임에 비하여 와유의 집은 진짜라 하였다. 주거공간에 아름다운 산수를 들이기 위해 장현광과 정경세(鄭經世, 1563~1633) 그리고 장유(張維, 1587~1638)는 주변 경관에 ‘경(景)’을 설정하였다. 집을 떠나서도 기억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언제든지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수려한 경관 속에 일상공간을 입지시킨 후 차경을 통해 집

표 1. 문헌 속의 ‘와유’

구분	관련인물	출전문헌	내용
주거공간 관련기록	장현광	旅軒集, 臥遊堂十一詠 臥遊堂說	와유당 주변 경관의 11수를 읊음 와유당에 누워 밖의 경치를 바라보는 것을 놀이로 여김
	김상용	仙源遺稿, 臥遊庵	산수를 좋아한 김상용은 명화나 고동을 좌우에 진열해 놓고는 그 집을 와유암이라 명명
	정경세	愚伏先生文集卷之一, 愚谷雜詠二十絶	상주의 우복산 우곡에 있던 자신의 집 주변의 풍광을 읊은 시를 서울 집에 걸어두고 한가한 때 와유의 자료로 삼았다고 함
	장유	谿谷先生集, 晚休堂十六詠	만휴당에서 접하는 경관은 같은 와유의 양상이더라도 그림으로 즐기는 것과 다름
	채팽윤	希菴先生集, 臥遊亭	진짜의 산수를 와유정에 누워 즐기니 진정한 와유의 즐거움
	정조	弘齋全書, 送臥遊亭主人	와유정 주인에게 홀로 즐길 운치를 그리워하며, 그림으로 그려 남기라고 함
정원의 구성물 관련기록	서거정	四佳集, 假山記	수고로움을 덜고 산수를 접할 수 있는 가산을 만들
	이승소	三淵集, 石假山詩序, 石假山	산은 주먹만한 하나의 돌이 많아진 것이니 돌 하나로 자연을 감상할 수 있음
	강희맹	東文選, 假山贊	친구 중경이 만든 석가산이 와유의 자료로 적합함에 찬을 지음
	채수	懶齋集, 石假山瀑布記	몸은 쇠하더라도 산수에 대한 갈망은 줄어들지 않아 석가산을 쌓음
	이익	星湖全集, 石假山記	가짜 산을 통하여 진짜 산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제공한다고 하여 와유의 자료로 활용
	유경중	海巖稿, <次譯侄寄來諸篇> 14수	못과 기이한 바위를 두어 삼라만상을 앉아서 즐김
	정약용	與猶堂全書, 茶山花詞 20首	작은 못, 못 속 봉우리 셋을 만들어 감상. 바닷가에서 괴석을 주위와 수석들을 쌓아 석가산 조영하고 감상한 내용을 기록
	김조순	楓臯集	친석고황을 석가산에 의지하고자 함
산수와 관련기록	김창협	農巖集, 谷雲九曲圖跋	곡운구곡도를 보고, 그림의 편집함을 따지지 않고 와유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역설
	김창흡	三淵集, 谷雲九曲圖歌	곡운구곡도의 용도는 와유를 위한 것임을 주장
	이익	星湖全集, 臥遊帖跋	와유라 하는 것은 몸이 누워 있는데 정신이 노니는 것. 이를 위해 시각적인 매개체가 필요함을 역설
	이만수	履園遺稿卷之九, 寤軒臥遊帖序	김홍도가 철월 북관정~여주 청심부를 배로 이동하며 그린 70폭 그림, 기문, 시를 수록한 첩에 서를 붙임
	남공철	金陵集	소상팔경이나 적벽 같은 곳을 시와 그림을 모은 화첩을 걸어 감흥이 일 때마다 와유하고자 함
	이유원	意園圖題語(1843)	자연에 향수로 이를 대리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의원을 대상으로 의원도를 제작한다고 함
산수유기 관련기록	서거정	送京師辛書狀季琚	경사에 가는 신여겸에게 자신은 가 보지 못하고 와유만 한 것에 대한 부러움
	윤증	明齋先生遺稿	1662년 금강산 유람에 김수증의 와유록을 보았음
		明齋先生遺稿卷之四	유익의 유향산록을 읽으며 와유의 흥취를 갖음
		明齋先生遺稿卷之二十九	손동원이라는 자가 변산으로 유람을 떠날 때 유산록을 지어 자기도 와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
박세당	西溪集, 臥遊錄	산수에 대해 좋아하기는 하지만 유람을 하지도 못함. 『와유록』을 보고서야 숙원을 풀어 서문을 씀	
놀이관련기록	서유거	東國覽勝圖	명승에 나아갈 수는 없더라도 그에 준하는 흥취를 느끼고자 함
	유본정	八仙臥遊圖	팔선와유도는 두보의 <음중팔선가>의 이름과 종병이 와유를 즐긴 뜻을 따 명명
지도관련기록	권근	東文選, 歷代帝王混一疆理圖誌	지도를 제작하고 나서 시골 한 곳에 있으면서 강산을 두루 다닐 수 있음을 기뻐함

*한국고전번역원 해제자료 참고

안에서 와유를 즐겼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일상공간 안에 정원을 조영하여 팝진한 와유를 즐기곤 하였다.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집안에 들이고자 산수자연을 모방하여 정원을 축조하였다. 특히, 정원의 구성물 중 석가산과 원지는 가장 효과적으로 산수를 옮겨놓는 요소이다. 석가산을 만들거나 석가산을 구경한 이들은 그 팝진(通眞)¹⁰함에 놀라 산수자연을 멀리 가서 즐길 필요가 없음을 전하고 있다. 원지(園池) 또한, 재료의 진위(眞僞)를 따짐에 있어서도 하자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익은 「와유첩(臥遊帖)」을 보고 발(跋)을 적어주었다. 와유란 본래 정신이 노닐을 말하는 것이지만, 정신을 노닐게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자료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와유라 하는 것은 몸이 누워 있는데 정신이 노니는 것이다. 정신은 마음의 영이요, 영은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으므로 온 세상에 불빛처럼 순식간에 만 리를 가므로 사물에 기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나 맹인은 꿈을 꾸지 않는다. 사물의 모습과 빛깔은 시력기관에서 판정한다. 보는 것에 깃들일 바가 없으면 생각도 또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없다. 이 때문에 흔히 방불한 것은 눈으로 얻지 않음이 없다.[李翼, 星湖全集, 臥遊帖跋]¹¹

산수화를 통해서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상상을 한다. 이보다 좀 더 자유로운 상상은 글을 통해서 가능하다. 와유의 자료로서 성행하던 회화와 글에서 감흥을 받고 직접 산수유람을 나서기도 한다. 그리고 다시 유람을 통해 본 풍경들을 그림과 글로 기록하여 순간의 즐거움을 영원토록 간직하고자 하는 바람과 더불어 동행하지 못한 벗과 이 풍경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사람이 오직 실제 산수를 구하다가 얻지 못하면 물러나 그림에서 구한다. 증병이 산수에 대해 한 것이 이것이다. 지금 그 당시 그림이 팝진하였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가 이미 말하기를, “늙고 병들어 명산을 두루 볼 수 없다고 하였으니 비록 형사에 방불한 것이라도 좋을 것이다.”[金昌協, 農巖集, 谷雲九曲圖跋]¹²

〈곡운구곡도(谷雲九曲圖)〉를 보며 지은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발문(跋文)이다. 명산을 돌아볼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와유를 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꼭 팝진한 그림이 아니라 형사(形寫)¹³에 방불(彷彿)¹⁴한 것이라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그림의 수준보다 와유의 필요성을 말하며, 산수기행시문과 회화의 감상을 통한 유람의 간접 경험을 주장한 것이다. 김창협(金昌翁, 1653~1722)도 〈곡운구곡도〉의 용도로 증병이 늙어 와유한 것과 같음을 밝히고 있다.

「이운지(怡雲志)」에도 소개되어 있는 남승도(覽勝圖)는 명승지 한 곳을 적어 넣은 것을 하나의 칸을 삼아 만든 도표를 놓고 주사위를 던져 얻은 숫자대로 따라가면서 주어지는 벌칙을 즐기며 돌아가는 놀이로, 벌칙으로 술을 마시고 시를 짓는 것(신영주, 2005: 409~410)이다.

내가 늙고 병들어 외진 시골에서 문을 닫고 있으니 비록 域內的 紺嶽, 逍遙와 같은 명산을 발돋움하여 내가 바라볼 수 있고 또 해외의 三山 같은 경우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다가갈 수 없는 일이다. 너희들이 한번 동국의 남승도를 만들어 술을 마시며 시를 짓고 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눈으로 보아 와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徐有渠, 楓石全集, 金華知非集]¹⁵

남승도는 명승유람도(名勝遊覽圖)의 준말이다. 이는 정원이거나 서재에서 벗과 함께 전국의 명승을 상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와유문화를 반영한 놀이이다.

이와 같이 와유의 의미는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장 팝진한 양상으로서 조성된 전통조경공간이 와유문화의 대상이자 와유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선시대 와유문화의 배경

1) 조선시대 문인문화(文人文化)

조선의 이념적 사유체계였던 성리학적 세계관은 17~18세기 사대부 간의 이념분쟁에 영향을 미쳤다. 극심한 당쟁과 외세의 침략이라는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유배(流配)나 은일(隱逸)의 고초를 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당쟁(黨爭)과 사회(士禍)로 인해 접철된 은일사상(隱逸思想)은 냉엄한 현실 속에서 다양한 인식론을 기반으로 표출(이)의철, 2005: 425)되었다.

(1) 산수자연관(山水自然觀)의 변화

성리학적 사유체계가 독점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조선전기에는 성리학이 세계를 인식하는 유일한 기제(機制)¹⁶였다고 볼 수 있다. 세계는 리(理)라는 원리에 의해 운영되며, 세계를 구성하는 만물에도 리(理)가 내재되어 있다(김형술, 2009: 330)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정통 성리학적 관념에서의 자연관은 리(理)를 매개로 하여 자연을 만물일체의 연속성 위에 놓음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일체(一體)라 사유(思惟)(박희성, 1997: 25)하였다. 산수를 대상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그 이면에 내재된 리(理)를 확인하고 그 본성을 회복하고자 지향하였다. 산수자연은 철리적(哲理的)이며, 이상적(理想的)이자 목적적(目的的)인 대상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산수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다. 산수를 관념성(觀念性)보다는 실재성(實在性)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며, 산수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을 시나 그림으로 형상하게 되는 것이다.

하늘과 땅 사이 사물에는 각기 理가 있어 위로는 해와 달과 별에서부터 아래로는 초목과 산천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조그맣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모두 道禮가 깃들어 있어 지극한 가르침이 아닌 것이 없다.[李珥, 恥齋先生遺稿, 楓巖錄跋]¹⁷

조선 중기 홍응길(洪應吉)이 지은 「유금강산록(遊金剛山錄)」에 발문을 적은 이이(李珣, 1536~1584)의 글을 통해 당시 산수를 찾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그곳에 내재된 리를 살펴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산을 오르는데 위험은 논하지 말라 / 겨우 신선경에 드니 혼을 씻을 만하구나.[金昌翁, 三淵集拾遺, 敬次家君韻¹⁸⁾

이에 반해 김창협(金昌協, 1651~1708)과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은 흥취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산수를 찾아나서 그 자체를 감상하고 즐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조선 후기 문인들의 산수 인식은 경험적(經驗的), 심미적(審美的)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김형술, 2009: 331). 산수의 아름다움을 직접 접하여 산수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한 산수 유람이 큰 유행을 하게 된다. 하지만, 산수 유람은 쉬이 즐기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이를 일상에서 대리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 여가문화로서의 풍류(風流)와 와유(臥遊)

조선시대 전반적인 여가문화의 양상은 풍류(風流)라고 할 수 있다(유준영, 1998: 100). ‘속된 일을 떠나 풍치(風致)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 혹은 ‘우리 민족음악을 예스럽게 일컫는 말’이라고 정의(신은경, 1998: 19)되어 있다. 이에 풍류는 선조들의 여가문화사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풍류는 조선 이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민족 고유의 문화로서 신라 때는 정신적(精神的)·사상적(思想的)·종교적(宗教的) 기조로, 고려시대에는 놀이적·예술적(藝術的)·선적(仙的) 요소가 부각되다가 조선시대에는 종교성이나 선적 요소를 배제하고 수려한 경관 속에서 연회(宴會)를 여는 것으로 일반화(신은경, 1998: 25)되었다. 풍류의 자의적 의미는 ‘바람이 흐르는 것’이다. 풍류가 한 곳에 얽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나 현실적 삶을 떠나서 노는 것을 의미(안계복, 2005: 151)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와유는 일상을 영위하는 현실적 삶의 공간에서 정신으로 산수자연을 즐기는 여가문화를 의미한다.

풍류는 조선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미학의 근원으로서 중국과 일본에서도 유사한 의미의 개념과 용례가 발견된다. 이는 민족별로 차이가 있지만, 놀이와 관계된 문화현상이라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노는 것’이라는 근본적 의미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적 배경과 함께 문화를 형성한 풍류는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에 접근(신은경, 1998: 66)하고자 한다. 따라서 풍류는 정신적 노닐에 주목하면서 도(道)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하여 어떻게 즐겼는가에 대한 방법에 관해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와유 또한 조선시대 성리학적 배경 속에서 현실의 제약을 수궁하며 즐긴 정신적 노닐을 의미한다. 자연을 즐기기 위한 목적을 심성수련을 위한 것이라 보고, 이를 위해 전개된 와

유문화적 양상에서 체험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풍류란 본래 성현(聖賢)들의 유풍(遺風)과 전통을 말하였으나, 점차 고상한 아취(雅趣)·멋스러움을 말하게 되었다. 폭넓은 인문학적인 범위에서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풍류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게 되면 와유(臥遊)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과거 선조들의 여가문화로서 풍류와 와유의 의미는 일맥상통하지만, 공간의 제약적 범위에 의해서 와유가 풍류의 개념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조선시대 주거문화(住居文化)

시대적 명분을 다 해야 하는 지식인들은 현실을 벗어나 자연을 노닐기만 할 수 없었다. 이에 사대부로서 현실적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연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외직(外職)으로 공무(公務)를 떠나 한가한 틈에 자연을 유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무로 인한 제약은 아쉬움을 남겼다. 귀거래(歸去來)를 결심하더라도 관직에 있는 동안은 어려운 일(조송식, 2002: 41~46)이었다. 이로써 마음속으로 동경하는 공간을 가까운 곳에 조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많은 누정(樓亭)이 있었고, 이는 현실에서 장자의 자연적인 삶을 실현하기에 좋은 방안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정치문화의 중심인 도회지를 떠나지 않고 일상과 가까운 공간에서 자연적인 삶을 즐기려 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1) 명말청초(明末清初) 문인문화의 유입

명말청초의 문인들은 왕조교체의 당쟁(黨爭)과 전란(戰亂)으로 인해 세속에 염증을 느끼고, 자신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하여 은둔생활(隱遁生活)을 하면서 예술에 전념했다. 그들은 산 속에서 탈속적인 삶을 살던 과거와는 다르게 본래 살고 있던 저택이나 도시 근교에 마련한 서재 혹은 정원에서 은일(隱逸)하고자 하였다. 정치와 문화의 중심인 도시 속에서 고동서화(古董書畫)의 완상(玩賞)과 탄금(彈琴), 위기(偉器), 전다(煎茶), 분완(盆玩), 조어(釣魚) 등을 즐기는 시은(市隱)을 추구(홍선표, 1997:121~123)한 것이다. 명말청초의 문인들은 시은을 추구하며 즐긴 문화를 교류하면서 문인의 정체성과 연대의식을 강화해 나갔다. 그들의 모임은 주로 성시산림으로 꾸민 개인의 주거공간인 정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념한 작품들이 전해지고 있다. 명대에는 문화향유를 위한 공간으로서 많은 정원이 조영되고, 정원과 관련한 서적이나 그림 등의 예술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은 문화 종주국이라 할 중국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다. 조선의 문인들은 결코 갈 수 없는 먼 이국땅에 대한 그리움으로 중국의 명승고적(名勝古跡)을 읊는 작품들을 만들었다(정민, 2004: 283~303).

조선 후기에는 입연(入燕)의 특권을 가진 역관(驛館)과 서쾌(書僮)라는 서적중개상에 의해 막대한 양의 중국서적이 수입되어 유통(강명관, 1996: 172~179)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시 속에 은둔하기 위하여 주거공간에 정원을 조영하고 정원 속에서 갖은 문화를 향유하던 명말청초의 문인문화가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게 유입되면서 그들과 같은 문화적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2) 성시산림문화(城市山林文化)의 유행

여말선초(麗末鮮初)부터 현실공간 속에서 은둔하고자 하는 풍조를 반영하여 속세를 멀리하고 산림과 같은 구조의 거주환경을 갖추고자 하는 문화가 주목받았다(김성룡, 1995: 213~215). 산수자연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산수자연의 아취를 느낄 수 있다는 뜻으로 문명 속에서 자연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러한 이상을 성시산림문화(城市山林文化)라 한다.

17세기 이후 도시문화가 발달하고 상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가 심해지면서 도시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는 점증(漸增)(최기숙, 2002: 422)하게 되었다. 이로써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머물기 위하여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는 이주하려 하지 않았다. 서울과 경기의 경화세족들이 관직의 임용은 물론, 문화 혜택 또한 독점하게 되었다.

전원보다 도시를 선호하는 현상은 세속화한 도회지에서 이상적인 삶과 타협 방안을 모색하게 하였다. 조선 후기 경화사족(京華士族)은 경교(京校)에 마련한 세거지(世居地)와 별서(別墅)에 각종 누각들을 세우고 자신의 정원을 이상적인 장소로 삼았다. 이곳에서 수많은 장서(藏書)와 고동서화(古董書畫)를 접하고 원예(園藝)를 취미로 하며 조선 후기의 문화를 꽃 피웠다.

亭子를 龍山과 廣陵 사이에 두고 매화 극화 소나무 대나무를 많이 심어 때때로 幅巾 野服 차림으로 나가서 소요하였다. 손이 오면 향을 피우고 단정히 앉아 경사를 토론하였으며, 곁에 고음의 법서, 명화, 동옥, 취현을 두고 품평하고 감상하였으니, 마음이 담박하여 세상의 영리를 바람이 없었다.[南公轍, 金陵集, 自礪錄]¹⁹⁾

도심 안에 저택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고동서화의 소장처(所藏處)를 두며 이를 현실과 분리하여 생활할 수 있는 이상세계로 인식하여 즐기곤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상규(沈象奎, 1766~1838)의 저택을 보면 당시 주거공간에서 행해진 생활양상을 볼 수 있다.

沈斗室의 嘉聲閣은 翁方綱이 쓴 글씨다. 기성각은 나라 안에서 으뜸가는 것으로 비록 一堂 二堂의 壯麗함이 있으나, 그 安穩 精緻한 데는 미치지 못한다. 공은 평생의 기력을 쏟아 이 집을 꾸미고, 情思를 소비해 古今의 書畫와 奇石 翠董을 수집하여 모두 여기에 저장해 두었다.[李裕元, 林下筆記, 華東玉簪編]²⁰⁾

도시 속에 지은 저택에서 고동서화를 소장하여 이를 즐기는

문화가 유행하게 되었다. 심혈을 기울여 집을 꾸밀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기석(奇石)과 취동(翠董)까지 감상하였다. 정신의 노닐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독서인은 강호(江湖)와 산수(山水)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기존의 관념이 일상생활공간에서도 즐기고자 하는 인식으로 변한 것이다.

3. 와유를 위한 전통조경공간의 조성

1) 와유의 바탕으로 조성한 상상 속의 전통조경공간

지식인들은 제약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이상(理想)을 펼쳐 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상향을 담을 수 있는 정원을 현실에서 소유하기는 힘들지만, 글로나마 설계하여 정원을 소유할 수 있었고, 실제로 정원을 소유하고 있다라도 현실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정원에 대한 바람을 상상 속에서는 제약 없이 담아 내어 정신으로 즐길 수 있었다. 상상 속에서 즐긴 전통조경공간은 현실의 삶 속에서 산수자연을 즐기고자 한 와유문화의 대표적인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1) 홍길주의 「원거념(爰居念)」

홍길주(洪吉周, 1786~1841)는 19세기의 경화사족을 대표하는 기문의 후예였으나, 과거를 포기하고 평생 동안 방대한 양의 저술활동을 하였다. 「숙수념(熟澁念)」은 그가 상상한 세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글(최식, 2005: 193)이다. 생활을 영위하기도 힘들게 가난했던 홍길주의 처지를 비추어 보면 실제로 정원을 조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거처가 밝지 못하면 뜻이 넓지 못하고, 보는 것이 통창하지 못하면 정신이 왕성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숙수념」의 제1념인 「원거념」의 저술동기를 밝혔다.

형상으로 구하는 것은 있는 듯 없고, 뜻으로 깨달은 것은 없는 듯 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명승을 차지하고 호재를 다투는 자는 지금 모두 연기가 사라지고 ... 천백 년 후에는 모두 없는 데로 돌아갈 것이니, 어찌 반드시 종이 위의 것이 나의 정원이 아니겠는가? ... 사람 중에 이곳을 유람하는 자는 발로는 밟을 수는 없지만 눈으로 그려볼 수 있으며,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상상할 수는 있을 것이니, 폐석에 앉아서도 두루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洪吉周, 熟澁念, 題辭]²¹⁾

세월이 흘러 실제의 공간은 지속해서 변하면서 모두 사라져버릴 수도 있으나, 종이 위에 설계한 의원은 천년이 지나더라도 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밟을 수는 없으나 볼 수는 있고, 보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상상할 수 있으니 정원을 감상하고 향유하는 데 있어 현실의 제약이 따르지 않는 것이다.

(2) 유경종의 「의원지(意園志)」

유경종(柳慶宗, 1565~1623)이 거주한 안산은 경화(京華)의 권역으로 서울 중심의 경화문화와 선진적인 학문을 공유할 수 있었다. 30대부터 유경종은 이미 해암동천(海巖洞天)을 경영하고 있었고, 이 공간에서 많은 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었다. 특히, 유경종은 강세황(姜世晃, 1712~1791)과 시(詩)·서(書)·화(畵) 등의 문화를 교류하며 좀 더 이상적인 정원을 꿈꾸게 된다(김동준, 2003: 167~169).

意園은 마음으로 정원을 만든 것이다. 정원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그것을 지었으니,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러나 마음에 그려보니 정원이 곧 내 눈앞에 나타나 뚜렷하게 보인다. 무릇 정원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마음에 두었다고 또한 반드시 정원을 소유하게 될 일도 아니다...[柳慶宗, 海巖稿, 意園志]²¹⁾

「의원지(意園志)」는 피세이식(避世意識)에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세상에서 구할 것이 없고, 세상 역시 나를 잊었다.”라고 얘기한 유경종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신을 보상할 공간으로 의원을 선택했고, 자신이 소망하는 대로 즐기거나 의원을 설계한 것이다.

일찍이 골짜기 한 귀퉁이를 소유하고자 하였으나 가난 탓에 그마저도 못했기 때문에, 읍에나마 적어두고 본 것이 의원이다.[柳慶宗, 海巖稿, 意園志]²³⁾

가난하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 정원을 향유하고자 한다고 했지만, 어감권(漁監權)을 가진 가문으로 그는 이미 안산 지역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²⁴⁾. 주변 강세황과 문화취향을 공유하면서 자신이 지은 「의원지」를 그림으로 접하고자 강세황에게 <의원도(意園圖)>를 부탁하기도 했다.

유경종은 의원을 그림으로까지 남겨 노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이미 실제로 해암동천이라는 자신의 이상공간을 실현하고 있었지만, 현실의 제약을 벗어나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이상을 서술한 것이 「의원지」였다. <의원도(意園圖)>는 그의 이상이 담긴 정원을 곁에 두고서 언제든지 흡족하며 노닐 수 있는 와유의 자료였다. 유경종은 의원이라는 정원의 소재를 빌어 현실과 이상향의 합일을 꾀하고 있다.

(3) 유만주의 「임화제도서(臨華制度序)」, 「흠영(欽英)」, 「인지동천기(仁智洞天記)」

유만주(俞晩柱, 1755~1788)는 사대부의 이상적인 정신을 노닐 수 있는 공간이 정원이라고 생각하였다.

인생에서 다소 널떠란 언덕과 골짜기 한 두 곳을 독차지하고 꽃과 나무, 새와 물고기를 기르며 하늘이 내려준 수명을 마칠 수 있다면 이야말로 더 이상 가는 것이 없는 세상에 드문 복일 것이다.[俞晩

柱, 欽英]²⁵⁾

유만주는 도시생활을 거부하지는 않으면서 이상적인 정원에서 품격 있는 아취(雅趣)를 즐기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집과 조경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은 유만주는 실제 정원을 경영하면서 상상 속의 정원을 글로 남기거나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정원을 탐방하고 감상한 글을 남겼다. 연못의 이상적인 경관을 묘사한 「임화제도」는 자신의 정원에 실제 있던 연지의 주변을 새롭게 하고자 한 설계안이다. 「임화제도서」란 글에 이 연못이 있는 이상적인 정원을 임화동천(臨華洞天)이라 하였다는 기록(안대회, 2009: 50~51)이 있다.

세속 도시의 더럽고 짝 막힘에 싫증이 나서 여기에 주거를 정하지 않고, 바다와 산이 있는, 맑고 트인 곳을 찾아 그 장소를 확보하고자 한다.[俞晩柱, 通園藁, 臨華制度序]²⁶⁾

현실의 제약을 벗어나고자 상상 속에 자신만의 정원을 만들었다. 상상하는 대로 그려지는 의원은 자신의 정신을 노니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유만주는 임화동천이나 실제 자신의 정원과 다른 정원을 꾸미고 싶은 마음에 갑을원림(甲乙園林)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글도 적었다.

갑을원림은 모두 照牆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내부는 方圓을 본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산빛과 들빛, 새소리와 꽃향기 속에서 즐긴다. 이야말로 진정한 淸福이자 이야말로 신선이다.[俞晩柱, 欽英]²⁷⁾

갑을원림은 밝게 빛나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내부는 방원을 본뵈 조성하였다. 상상 속의 정원에 자신의 취향대로 가꾼 상상의 공간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2) 와유로 즐긴 일상공간에서의 한적과 아취

(1) 유경종의 해암동천(海巖洞天)

유경종은 안산시 부곡동 정재골에 있는 해암동천에서 1756년 3월 「의원지」를 썼으며, 시문학을 창작하였다. 그는 이미 경영하고 있던 정원에 대한 아쉬움을 극복하고자 의원(意園)을 설계했던 것이다.

해암의 산 및 푸른 시냇가

지붕이고 나무 심는 계획은 모자라도
꽃 찾고 언덕 찾는 흥취에는 늘 끌리지

...

한 구역 차지해서 꽃과 돌을 즐기자는 뜻 아니니

문득 지손들에게 옛 터전을 보전케 하려네.[柳慶宗, 海巖稿, 秋感十篇]²⁸⁾

30세에 안산의 해암(海巖) 부근으로 이사하여 호를 해암(海巖)으로 정하고, 그 후 평생 동안 이곳을 개척하며 자신의 생활 공간으로 삼았다. 약 20년 동안 정재골의 산골짜기를 개척해 꿈에 그리던 이상공간인 동천(洞天)을 마련해 나간 것이다. 일정 영역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저 어려움 없이 흥취를 즐기고자 한 바람으로 조성하고자 한 정원이었다. 자신의 이런 의도를 자손들에게 보전케 하기 위하여 전하고자 한다.

유경중이 저술한 「의원지」에 묘사된 정원과 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과 분리되어 이상적으로 꿈꾸던 의원을 구현하는 공간이면서 서울에서 멀지 않은 안산이라는 경화(京華) 권역이었던 해암동천은 많은 문화를 끊임없이 교류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곳으로 현실과 소통하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유경중은 자신의 일상공간인 해암동천에서 한적과 아취를 느끼며 정신을 노닐 수 있었던 것이다.

(2) 유만주의 정원

유만주가 저술한 「흠영(欽英)」과 「통원문고(通園文藁)」에는 18세기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세세한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는 「홍길동전」이나 「허생전」에서는 거국적(學國的)인 대규모의 이상적인 세계를 그려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일상적인 장소에서 미시적(微視的)인 이상향을 실현해내고 있었다. 번잡한 도회지 속에서 한적함을 느끼고자 했던 유만주는 정원의 조영과 정원의 감상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김으로써 자연과 함께 하는 일상의 삶에서 만족하고 있었다.

珠簾을 걷고, 軒에서 꽃을 보고, 문을 열고 함께 정원의 푸르름을 보았다. 의논하길, 이름난 정원은 性情을 도야하고 마음을 流露하는 도구가 되니, 낮고 좁은 곳보다 훨씬 낫다고 하였다. 달밤의 약속을 정하였다.[俞晚柱, 欽英]²⁹⁾

그는 정원에 있는 나무와 화초의 목록을 만들기도 하고, 산수를 노닐다가도 자신의 정원생각에 잠기곤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만큼 자신의 정원에 대한 애착이 깊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괴리가 많은 현실세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아름다운 정원이 타고난 본성을 도야하고 감정이 어떠한 형태든 살아나게 하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유만주는 결합이 많은 현실세계와는 다르게 자연세계는 온전함을 갖춘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에게 정원은 항상 변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관찰함으로써 언제나 새롭게 정신적인 노닐을 거니는 공간이었다.

(3) 정약용의 다산초당원(茶山草堂苑)

다산초당원은 1808년부터 정약용이 강학을 하며 학문탐구와 저술활동을 할 수 있었던 공간이다.



그림 1. 정약용(丁若鏞), 다산도(茶山圖), 1812, 개인소장

가슴 속에는 자그마한 은둔처 생각이

반평생을 두고 서려 있었기에

다짜고짜 그 뜻 한 번 펴보려고

분수를 떠질 겨를도 없이[丁若鏞, 與猶堂全書, 詩文集]³⁰⁾

정원을 조영하는 것이 처지에 맞지 않는 일임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은 공간에 대한 강한 조영의지 때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배를 당해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던 정약용은 세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로 현실을 등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다. 이는 은둔처에 대한 갈망으로 표현되고 결국 다산초당원의 조영은 자신의 이상향을 펴보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정약용은 스스로 칼과 삽을 들고 얽혀있는 것들을 손질했다. 돌도 스스로 쌓아 단을 만들고 나무와 화훼의 식재도 손수했다. 정약용은 자신이 바라는 바대로 일일이 손으로 다듬고 조영하면서 만족하였다.

지역을 선택할 때는 모름지기 아름다운 산수를 골라야 한다. 그러나 강을 낀 산은 시냇물을 낀 산만 못하며, 마을 입구에는 높은 암벽이 있고, 조금 들어가면 눈이 시원하게 확 트인 곳이라야 비로소 福地인 것이다. 중앙에 구세가 맺힌 곳에 초가집 5·4칸을 짓되, 나침반을 가지고 坐向을 정남향으로 정하고 아주 정교하게 지은 다음 ... [丁若鏞, 與猶堂全書, 題黃裳幽人帖]³¹⁾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을 지어 제자 황상에게 유인(幽人)³²⁾의 삶에 대해 그 세목을 전해 주었던 정약용은 다산초당원을 조영하면서 본인이 꿈에 그리던 유인의 공간을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다산도(茶山圖)>를 통해 당시의 다산초당원을 살펴보면, 「제황상유인첩」에서 묘사했던 유인의 주거공간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와유로 해소한 명승명소(名勝名所)에의 욕구

(1) 홍경모의 사의당(四宜堂)

사의당은 홍만회(洪萬恢, 1643~1709)로부터 홍경모(洪敬謨,

1774~1851)에 이르기까지 6대 150여 년 동안 도성의 이름난 저택이었다(이종목, 2008: 572~574). 홍만회가 사의당을 지을 때 주거공간의 입지와 주변경관이 수려한 곳을 고르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정원을 정성스럽게 조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홍경모가 편찬, 보완한 「사의당지(四宜堂志)」를 통해 당시의 사의당을 추론할 수 있다.

진고개에 지은 집은 실로 성시 속에 있는 산림이라네. 괴석과 푸른 소나무가 난간 아래 빼어나고, 이름난 꽃과 긴 대나무가 뜰에 둘러서 있네 ... 삼각산이 세 발 솔처럼 서 있으니 의연한 문필봉의 모습이라네 ... 실로 중앙의 그윽한 곳에 위치해 있으니 백악을 앞에서 마주하고 뒤로 자각봉에 임해있네 ... 공손하게 아름다운 찬송을 하노라 ... 조용한 가운데 정신을 기쁘게 하여 편안히 살아가네. [洪樂源, 四宜堂志, 澄懷閣 上樑文]³³⁾

「당우(堂宇)」에는 홍양호의 아들 홍낙원(洪樂源)이 지은 정회각(澄懷閣)의 상량문(上樑文)이 실려 있다. 상량문에는 사의당 주변의 빼어난 경관에 대해 서술하면서 성시 속의 산림에서 조용한 가운데 정신을 기쁘게 하여 편안히 살아가는 삶을 전하고 있다.

나무와 바위가 크고 아름다우며 건물이 전설하다. 산의 북쪽에 자리하였지만 높고 밝고 상쾌하여 빼어나다. 터는 높다랗지만 거대하거나 화려한 볼거리는 없다. 겨우 무릎 하나 들어놓기에 쉽고 편안하니 온전하고 아름다워 진실로 군자의 거처로 합당하다. [洪敬謨, 四宜堂志, 堂宇]³⁴⁾

군자의 거처로 보이는 사의당은 산과 나무와 바위가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아름다운 경관을 집 안에서 편히 와유할 수 있던 사의당은 일상공간에서 멀리 나서지 않고도 명승명소에의 욕구를 해소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2) 이유원의 가오곡(嘉梧谷)

인왕산의 필운별서(弼雲別墅)를 경영했던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의 9세손인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은 1859년 경기도 남양주의 가오곡(嘉梧谷)에 터를 잡았다. 터를 잡자마자 정원을 조성하고 장서각(藏書閣)과 다옥(茶屋), 사시향관(四時香館), 오백간정(五百間亭) 등을 지어 놓고 왕유(王維)의 망천(浬川)에 자신의 가오곡을 빗대며 만족한다. 그는 ‘가오복지(嘉梧福地)’라는 각자(刻字)를 남기고 자신의 정원을 의원(意園)이라 명명하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사람으로 누가 이런 계획이 없겠는가? 경영을 늦게 하여 이루기 어려웠던 것이다. 무릇 몸을 굽혀 자리를 다하고 은류하여 용이 있게 물러나는 것은 모두 아름다운 일이다 ... 시골로 돌아와 이로써 여생을 마치는 자는 드물다 ... 몇 년



그림 2. 가오곡에 현재 남아있는 바위글씨 ‘가오복지(嘉梧福地)’

후에 내 정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곳이 浬川이 아니며 어느 곳이 平川이 아니리오, 인하여 내 정원을 의원이라 명한다.” [李裕元, 嘉梧藥略, 意園圖題語]³⁵⁾

벼슬에서 물러나 한적한 시골에서 은거생활을 하는 것은 조선시대 많은 문인들의 이상이었다. 왕유의 망천도 부럽지 않을 가오곡은 이유원이 불안하고 복잡한 정세를 피해 은거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공간이었다. 가오곡의 수려한 산수의 경관은 그의 친석고향의 벽을 해소하며 자신의 문화취향을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었다.

상서 굴산 이유원은 이른 나이에 현달했으나 오로지 시골에 뜻이 있었다. 일찍이 상상하여 산에서 사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망천영벽과 같으니 〈浬山意園圖〉라고 이름하여 말하기를 ... 천마산 아래 가오곡에 터를 정하였는데 그 泉石, 園池, 臺樹의 경치가 앞서 그렸던 것과 대략 같았다 ... [尹定鉉, 林下筆記, 壽藏碑後記]³⁶⁾

윤정현(尹定鉉, 1793~1874)의 「수장비후기(壽藏碑後記)」를 통해 가오곡의 정원이 이유원이 바라던 이상향의 공간으로서 조영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람대로 실제의 정원을 조영하면서 산수자연에 대한 토크를 즐길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조선시대 의원의 의미와 다르게 이유원은 상상 속의 공간이 아닌 직접적인 정원 경영에 뜻이 있었다. 이유원은 산수의 아름다운 곳에 정원을 경영하며, 명승명소에의 욕구를 해소하면서 멀리 나아가지 않는 수고로움을 덜고 쉬이 노닐 수 있는 와유를 즐겼다.

III.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문인들이 산수의 감흥을 취하고자 한 전통조경공간에 대한 태도와 시각을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재고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조경공간은 고뇌와 제약이 있는 현실을 잊으려는 피세(避世)의식에서 조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조경공간은 현실에서 뜻을 얻지 못한 문인들이 다시 정신의 소요유(逍遙遊)를 통해 세상을 즐긴 완세(玩世)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단순히 물리적 아름다움으로 그 의

미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소요와 완상을 통한 정신적 노닐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전통조경공간과 와유문화의 관계는 공간의 허실(虛實)과 현실적인 제약을 넘어 산수자연의 감흥을 일상에서 즐기려 발현된 것이었다. 산수에 대한 탐미적 태도를 갖게 되면서 이에 대한 표현이 자유로워진 조선시대의 문인들은 상상 속의 정원에서나, 실제의 조경공간 혹은 조경공간을 초월해서도 언제나 산수자연을 담은 조경공간의 흥취를 향유하고자 하였다. 전통조경공간에 미친 와유문화의 영향은 산수에 대한 벽(癖)을 자신의 일상공간에서 해소하고자 했던 부분들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와유(臥遊)는 위진남북조시대의 불학자(佛學者)인 종병(宗炳)이 현실적으로 산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수자연의 도(道)를 체득하기 위하여 행했던 산수자연의 감상방법이었다. 이러한 와유의 의미가 명말청초가 되자 산수자연을 심미적 대상으로 유희하고자 하는 감상방법으로 언급된다. 변화된 와유의 의미는 조선시대 문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철리적(哲理的) 대상이었던 산수자연이 심미적(審美的) 대상으로 변화하며 산수자연을 체험하고 이를 즐기려 하는 의도가 확대된 것이다. 현실의 제약 속에서 산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은 커져만 가던 시기 현실 안에서 소요유하여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와유의 의미는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갈망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실질적으로 산수자연을 축소·모방하여 조경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벗어나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정신으로나마 노닐기 위한 목적으로 와유문화는 성행하였다.

조선의 문인들은 명말청초 문화의 영향을 받아 조선 후기 난숙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현실의 고달픔은 알지만 현실을 떠나 살 수 없었던 문인들은 시(市隱)문화를 형성하게 되었고, 성시산림(城市山林)을 조영하는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조영된 조경공간은 정신을 노닐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었다. 상상의 공간에서는 건축의 규모와 형식이 문제되지 않았으며, 정원에 대한 갖은 취미도 꿈꿔 볼 수 있었다. 상상의 공간에서든 실제의 공간에서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조경공간은 쉬이 정신을 노닐 수 있었던 것이다.

성시산림(城市山林)의 문화가 유행하면서 문인들의 모임 또한 명승명소(名勝名所)를 찾아가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잘 가꾸어진 정원에서 열렸다. 당시 산수자연의 미의식이 집약된 정원을 감상하며 소요하고 완상하는 취미는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문인들의 취미로 주목받았고, 소요(逍遙)와 유람(遊覽)의 생활문화를 형성해온 조선시대 선비문화는 뜰을 거닐며 가꾸는 흥취를 부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흥취를 놀이문화와 함께 향유할 수 있었던 정원은 일상에 있지만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정신이 노닐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조경공간은 산수자연을 집약적으로 담아 일상공간에서 한적(閑寂)과 아취(雅趣)를 즐길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었다. 조선

시대 문인들은 이러한 공간 자체를 지속하여 감상하고 싶었고, 아름다운 정원에서 뜻 맞는 벗들과 함께한 모임의 감흥 역시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다. 물리적인 정원의 모습 뿐 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변화하는 정원의 아름다움도 지속하여 감상하고자 남긴 기록들이 전해진다. 또한 본인의 정원이든, 타인의 정원이든 관계없이 이상적인 장소로 조영한 정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상과 정원을 떠나더라도 그 흥취를 즐기려 한 의도로 정원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였다. 이들을 통해 실제의 정원을 벗어나더라도 쉬이 그 흥취를 즐길 수 있는 와유문화를 향유한 것이다.

본 연구는 조경공간의 물리적 구성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조경공간이 개인의 이상향(理想鄉)이 축적되어 정신을 노닐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지는 의미를 추출한 것이다. 조선시대 전통조경공간을 심신(心身)의 휴식과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의 수양과 유희를 위한 공간으로 바라보며, 그 의미와 가치를 재고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현재 일반적으로 정의된 와유문화의 의미는 회화를 보며 쉬이 산수유람을 즐겼다는 것으로 통용(通用)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종목(2004)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와유문화가 회화영역에 한정되어 전개된 것이 아님을 문인들의 기록을 통해 고찰하였다. 와유문화의 다각적인 해석과 전개양상을 연구하면서 산수자연을 담은 정원이 와유문화의 상상임을 해석하였는데, 이는 와유문화에 관련한 일반적인 함의(含意)를 이끌어내는데 연구의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주 1) 청계천문화관(2009). 와유산수전 기획전시의 목적
- 주 2) 고치가 어렵게 굳어 버린 버릇 혹은 무엇을 너무 치우치게 즐기는 성벽을 의미
- 주 3) 조송식(1998). 와유 사상의 형성과 그 예술적 실현. 육조시대에서 북송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예술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2.
- 주 4) 고연희(2001). 조선 후기 산수기행예술연구. 정선과 농민 그룹을 중심으로. 서울: 일지사. p.193.
- 주 5)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M&seojiId=kc_mm_a469&gunchaId=av010&muncheId=03&finId=013&NodeId=&setid=518318&Pos=0&TotalCount=11&searchUrl=ok
- 주 6)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bookListI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e004&gunchaId=av024&NodeId=&setid=525784
- 주 7)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bookListI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c006&gunchaId=&NodeId=&setid=526966
- 주 8) 조송식(2002). 조선시대 사대부의 이중적 자연관과 와유적 산수화의 변화. 한국미학회지. 33: 54.
- 주 9) 이종목(2004). 조선시대 와유문화 연구. 진단학보. 98: 103.
- 주 10) 실물과 아주 비슷하거나 사정이나 표현이 진실하여 거짓이 없다는 의미
- 주 11) 이종목(2004). 조선시대 와유문화 연구. 진단학보. 98: 90.
- 주 12) 조규희(2006). 「곡운구곡도첩」의 다층적 의미. 미술사논단. 23
- 주 13) 어떤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글로 쓰거나 베껴올 의미
- 주 14) 거의 비슷하다. 흐릿하거나 어렵듯하다. 무엇과 같다고 느끼게 하더라는 의미
- 주 15) 신영주(2005). 「이운지」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생활 모습. 한문학보. 13: 410.

주 16)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를 의미
 주 17) 김형술(2009). 조선 후기 산수 인식의 변화와 산수시 창작의 새 양상. 한국한시연구. 16: 306.
 주 18)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url=/itkcdb/text/bookListIframe.jsp?bizName=MM&seojiId=kc_mm_a439&gunchaId=&NodeId=&setid=530227
 주 19) 강명관(1998). 조선 후기 경화세족과 고통서화 취미. 동양한문학연구. 12: 7.
 주 20)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h018&gunchaId=av034&munchId=01&finId=013&NodeId=&setid=695741&Pos=1&TotalCount=2&searchUrl=ok
 주 21) 최식(2005). 홍길주의 복거와 「숙수념」. 동방한문학. 28: 208.
 주 22) 김동준(2003). 해암 유경종의 시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69.
 주 23) 김동준(2003). 해암 유경종의 시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72.
 주 24) 김동준(2003)은 유경종이 안산의 부호로서 장서(藏書) 가문에 어감권(漁監權)을 가진 집안이었으나 당대에 이르러 가문이 위축되고, 이로 경화사족이 되지 못했던 상대적 박탈감을 가졌었음을 확인하였다.
 주 25) 김하라(2001). 일기문학으로서의 「흙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8.
 주 26) 안대회(2009). 통원 유만주의 조경미학.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1): 52.
 주 27) 안대회(2009). 통원 유만주의 조경미학.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1): 52.
 주 28) 김동준(2003). 해암 유경종의 시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76.
 주 29) 김하라(2001). 일기문학으로서의 「흙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4.
 주 30) 박희성(1997). 정약용의 자연관과 다산초당원의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1.
 주 31) 정찬민(2004). 다산의 원림관 고찰.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주 32) 어지러운 세상을 피하여 조용한 곳에 숨어 사는 사람을 의미
 주 33) 홍경모, 이종목 역(2009). 사의당지. 우리집을 말한다. 서울: 휴머니스트. p.67.
 주 34) 홍경모, 이종목 역(2009). 사의당지. 우리집을 말한다. 서울: 휴머니스트. p.57.
 주 35) 유영혜(2007). 굴산 이유원 연구. 문화, 예술 취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
 주 36)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h018&gun

chaId=av025&munchId=01&finId=096&NodeId=&setid=520601&Pos=0&TotalCount=1&searchUrl=ok

인용문헌

1. 강명관(1996). 조선 후기 서적의 수입 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민족문화사학회지. 9(1): 172-179.
2. 고연희(2001). 조선 후기 산수기행예술연구. 정선과 농연 그룹을 중심으로. 서울: 일지사. pp.193-197.
3. 김동준(2003). 해암 유경종의 시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67-169.
4. 김성룡(1995). 여말선초의 문학사상. 서울: 한길사. pp.213-215.
5. 김형술(2009). 조선 후기 산수 인식의 변화와 산수시 창작의 새 양상. 한국한시연구. 16: 330-331.
6. 박희성(1997). 정약용의 자연관과 다산초당원의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7. 소형수(2003). 조선시대 유산기를 통해 본 전통경관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6.
8. 신영주(2005). 「이운지」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생활 모습. 한문학보. 13: 409-410.
9. 신은경(1999). 풍류. 서울: 보고사. pp.19-66.
10. 안계복(2005). 풍류의 정원. 루.정.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1): 151.
11. 안대회(2002). 18·19세기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조선 후기 산문가의 기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7: 112-115.
12. 안대회(2009). 통원 유만주의 조경미학.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1): 50-51.
13. 유준영(1998). 조선시대 '유(遊)'의 개념과 지식인들의 산수관. 미술사학보. 11: 100.
14. 이의철(2005). 조선전기 관각과 문인의 은일과 권력의 문제. 한문연구. 33(2): 425.
15. 이종목(2008). 조선 후기 경화세족의 주거문화와 사의당. 한문학보. 19: 572-574.
16. 정민(2004). 16·17세기 조선 문인지식인층의 강호열과 서호도. 고전문학연구. 22: 283-303.
17. 조송식(2002). 조선시대 사대부의 이중적 자연관과 와유적 산수화의 변화. 한국미학회지. 33: 41-54.
18. 최기숙(2002). 도시, 옥망, 환멸. 18~19세기 '서울'의 재발견. 고전문학연구. 23: 422.
19. 최식(2005). 홍길주의 복거와 「숙수념」. 동방한문학. 28: 193.
20. 홍선표(1997). 조선 후기의 회화 애호풍조와 감평 활동. 한국미술연구소. 5: 121-123.
21.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

원고접수: 2011년 4월 25일

최종수정본 접수: 2011년 6월 7일

2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